

청소년 범죄 발생 동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 범죄 발생 동향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1. 서론

1) 문제의식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 문제는 늘 심각하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없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오래된 걱정거리였다(노성호 외, 1999). 한 사회만을 두고 보더라도 과거에도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문제의식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범죄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며, 범죄형태는 갈수록 폭력적이 되어간다는 것이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에서 강조되는 바이다.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얼마나 심각한가? 과연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범죄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형태는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청소년 범죄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청소년 범죄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 범죄 동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장기적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공식적인 범죄통계조사가 이뤄졌던 1966년 범죄통계 자료로부터 최근 2005년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통계를 분석한다. 더불어 이러한 통계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2) 자료와 연구방법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얻어진다. 하나는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해 얻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구성한 자료이다. 전자의 통계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 그리고 이 자료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접수한 사건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있다. 후자의 자료로서는 청소년 범죄피해자조사나 범죄에 대한 자기보고질문서(self-report

questionnaire)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수준의 자료들이 갖는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는 전체적인 범죄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범죄(hidden crime)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성언, 2000: 6). 반면에 개인 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는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숨은 범죄를 드러내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¹⁾ 그러므로 범죄의 추이를 파악하자면 이 두 가지 수준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년 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에 의존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 통계자료는 검찰청 『범죄분석』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범죄백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3년부터이지만, 안정된 지표를 통한 통계수집이 이뤄진 것은 1966년부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의 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이것은 수집 가능한 모든 시기의 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소년 범죄 동향

1) 소년범죄의 일반적 동향

지난 1966년 이후 2005년까지 소년 범죄자수의 증감은 <표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범죄 통계가 이뤄진 1966년 당시 소년범죄자 수는 총 38,187명이었는데, 10년 후인 1976년에는 81,369명이 되었고, 20년 후인 1986년에는 106,335명으로 늘어났으며, 30년 후인 1996년에는 136,695명으로 늘어났다.

<표1> 소년범죄 동향(1966-2005)

1)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자 조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1991), 김준호·심영희·조정희(1991) 참조.

3 2007 책임연구과제

연도	소년 추계인구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35,583	76.5	2,604	5.6	38,187	82.1
1967	4,908,246	32,378	66.0	1,806	3.7	34,184	69.6
1968	5,162,807	34,048	65.9	1,935	3.7	35,983	69.7
1969	5,469,271	35,044	64.1	1,863	3.4	36,907	67.5
1970	5,843,502	40,699	69.6	1,913	3.3	42,612	72.9
1971	6,183,098	38,292	61.9	2,243	3.6	40,535	65.6
1972	6,550,943	48,933	74.7	2,888	4.4	51,821	79.1
1973	6,825,090	46,749	68.5	2,416	3.5	49,165	72.0
1974	7,016,653	47,063	67.1	2,067	2.9	49,130	70.0
1975	7,153,598	60,314	84.3	2,606	3.6	62,920	88.0
1976	7,220,166	76,601	106.1	4,768	6.6	81,369	112.7
1977	7,244,411	80,574	111.2	4,534	6.3	85,108	117.5
1978	7,235,483	70,726	97.7	5,813	8.0	76,539	105.8
1979	7,179,966	73,536	102.4	6,805	9.5	80,341	111.9
1980	7,119,075	83,959	117.9	4,766	6.7	88,725	124.6
1981	7,068,728	84,275	119.2	6,397	9.0	90,672	128.3
1982	7,059,301	99,382	140.8	9,452	13.4	108,834	154.2
1983	7,089,432	93,356	131.7	12,292	17.3	105,648	149.0
1984	7,145,651	90,569	126.7	14,009	19.6	104,578	146.4
1985	7,188,000	88,298	122.8	13,927	19.4	102,225	142.2
1986	7,195,486	89,206	124.0	17,149	23.8	106,355	147.8
1987	7,174,062	80,025	111.5	17,824	24.8	97,849	136.4
1988	7,090,336	80,641	113.7	23,411	33.0	104,052	146.8
1989	6,944,890	85,428	123.0	22,587	32.5	108,015	155.5
1990	6,759,334	82,446	122.0	23,121	34.2	105,567	156.2
1991	6,610,059	72,413	109.5	30,124	45.6	102,537	155.1
1992	6,502,739	67,553	103.9	31,748	48.8	99,301	152.7
1993	6,434,668	74,465	115.7	36,169	56.2	110,634	171.9
1994	6,389,562	77,476	121.3	30,866	48.3	108,342	169.6
1995	6,339,477	85,461	134.8	38,783	61.2	124,244	196.0
1996	6,296,918	87,084	138.3	49,611	78.8	136,695	217.1
1997	6,211,001	95,666	154.0	54,190	87.2	149,856	241.3
1998	6,093,609	99,552	163.4	48,946	80.3	148,498	243.7
1999	5,924,716	93,261	157.4	48,990	82.7	142,251	240.1
2000	5,711,899	95,335	166.9	48,308	84.6	143,643	251.5
2001	5,470,013	83,572	152.8	47,411	86.7	130,983	239.5
2002	5,276,412	75,982	144.0	39,441	74.7	115,423	218.8
2003	5,171,736	67,135	129.8	28,950	56.0	96,085	185.8
2004	5,152,787	51,298	99.6	21,472	41.7	72,770	141.2
2005	5,194,546	50,652	97.5	16,826	32.4	67,478	1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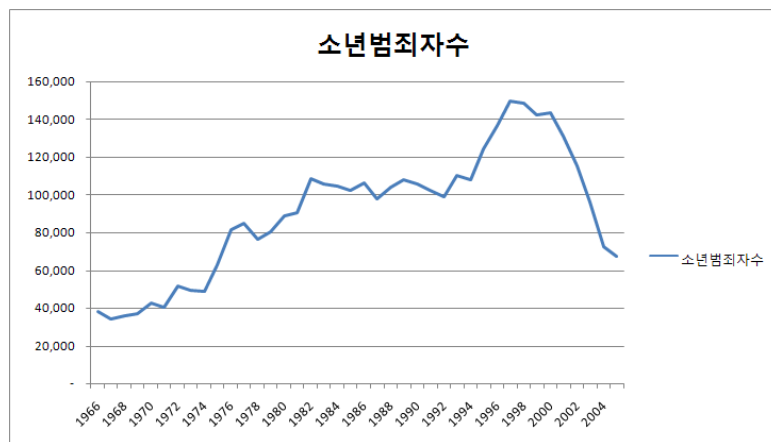
자료: 『범죄백서』(1996, 2001, 2006)을 재구성함.

주1) 소년추계인구는 통계청 전국 연도별 연령별 추계인구 자료임.

주2)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추계인구 1만명당 범죄자 수임.

소년범죄자수의 증가세는 1997년에 149,856명에서 최고를 이룬 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난 2005년에는 67,47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절대 수를 놓고 볼 때, 1997년까지 줄곧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은 소년범죄자 수의 증감 추세를 시기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1966년부터 1982년까지 소년범죄자 수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정체기를 나타내다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 후, 2005년부터 2005년까지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를 놓고 볼 때, 196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소년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소년범죄자수 추이(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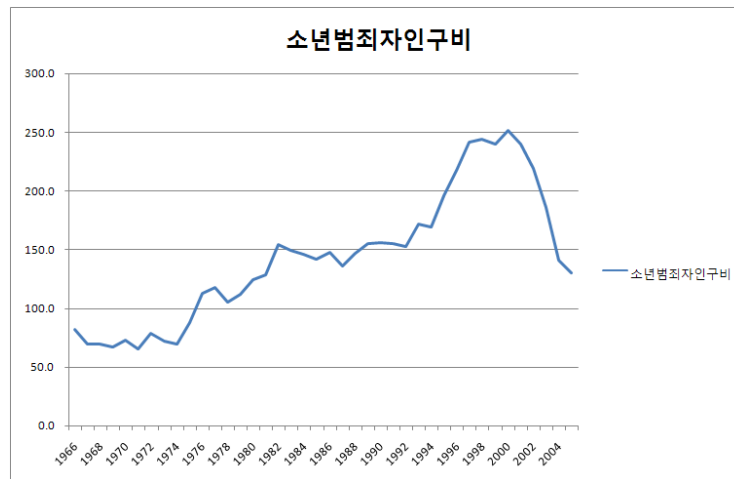


소년범죄자 수의 증감은 소년범죄 동향을 보여주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년인구 자체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을 통해서 보면, 1966년 전체 소년 추계인구는 4,65만명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1976년에는 720만명으로 급증하였다가 이후 점점 감소해서 2005년에는 5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년 인구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자 수만으로는 시기별 범죄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년범죄 동향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방법은 인구비를 통해 비교해 보는 것이다.

<표1>을 통해서 소년범죄자 인구비를 비교해 보면, 1966년 소년인구 만명당 범죄자 수는 82.1명이었는데, 10년 후인 1976년에는 112.7명으로 늘어나고, 20년 후인 1986년에는 147.8명으로, 30년 후인 1996년에는 217.1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에 251.5명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가장 최근인 2005년에는 129.9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소년 범죄자 인구비를 통해 볼 때, 1966년 소년인구 만명당 82.1명이던 범죄자수는 2000년에는 251.5명에 이르러 34년만에 3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 이후 반전되어 2005년에는 2000년과 비교해서 소년인구 만명당 범죄자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2>는 소년범죄자 인구비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볼 때,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소년인구 만명당 소년범죄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5년부터 1983년 사이에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이후 10년 정도 일정한 수준을 다시 유지하다가,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급증 추세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급감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2> 소년범죄자 인구비 추이(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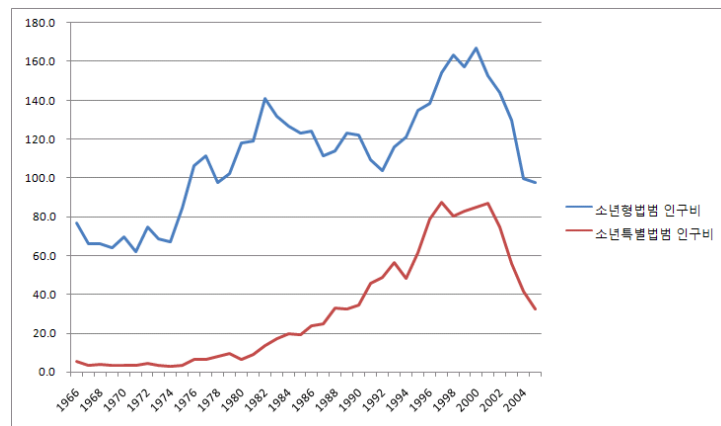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인구 1만명당 소년범죄자 수임.

소년범죄자 수와 인구비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소년범죄 동향이 지난 2000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논

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2000년까지의 상황이며, 2000년 이후에는 소년범죄자 수에 있어서나, 인구비에 있어서나 소년범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소년범죄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표1>을 통해서 소년 범죄자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하여 인구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년형법범의 경우 1966년에는 인구 만명당 소년형법범이 76.5명이던 것이 지난 2000년에는 166.9명을 나타내다가 최근 2005년에는 97.5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1966년 소년형법범 인구비와 비교해서 2000년도 소년형법범 인구비는 2.2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2005년 소년형법범 인구비는 1966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소년특별법범의 경우를 보면, 1966년에 인구 만명당 소년특별법범이 5.6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84.6명에 이르렀다가 최근 2005년에는 32.4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1966년 소년특별법범 인구비와 비교해서 2000년도 소년특별법범 인구비는 15.1배가 증가한 것이며, 2005년 소년특별법범 인구비는 1966년 대비 5.8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림3>은 이러한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66년 이후 연도별 소년형법범의 인구비 추이는 2000년도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반면, 소년 특별법범의 인구비 추이는 2000년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소년형법범과 소년특별법범 인구비는 모두 2000년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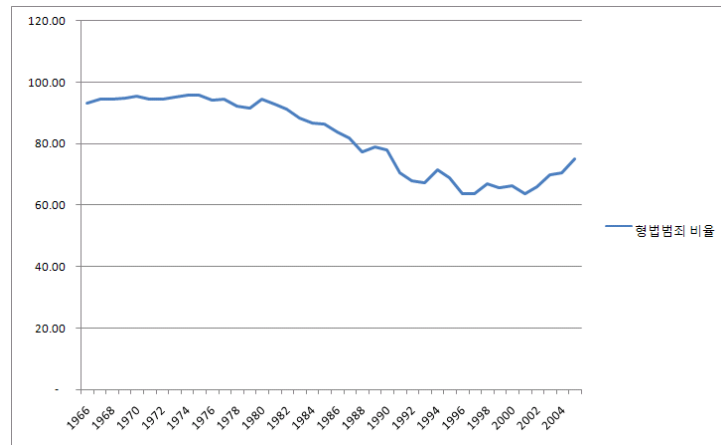
<그림3> 소년형법범과 특별법범 인구비 추이(1966-2005)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전체 소년범죄에서 소년형법범과 소년특별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6년에는 소년형법범이 소년특별법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1966년의 경우 소년형법범이 인구 만명당 76.5명이었던 반면, 소년 특별법범은 5.6명으로서 전체 소년범죄에서 형법범은 93.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소년범죄에서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서 1996년에는 63.7%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2005년에는 75.0%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림4>는 이러한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4> 소년형법범죄 비율



주1) 소년형법범죄 비율은 전체 소년범죄에서 소년형법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4>를 통해 볼 때, 1966년부터 1982년까지는 소년형법범이 전체 소년범죄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0년 즈음까지는 점차 소년형법범의 비중이 축소되어서 60% 가까이에 이르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소년형법범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년형법범의 동향

소년형법범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증감 추세를 통해서 나타난다. <표2>는 소년형법범 동향을 조사한 것이다.

<표2> 소년 형법범 동향(1966-2005)

연도	소년추계인구	소년형법범		성인추계인구	성인형법범		소년범 비율
		인원	소년인구비		인원	성인인구비	
1966	4,651,875	35,583	76.5	13,821,985	190,665	137.9	15.7
1967	4,908,246	32,378	66.0	14,148,806	181,404	128.2	15.1
1968	5,162,807	34,048	65.9	14,520,537	200,303	137.9	14.5
1969	5,469,271	35,044	64.1	14,889,400	201,361	135.2	14.8
1970	5,843,502	40,699	69.6	15,262,104	215,334	141.1	15.9
1971	6,183,098	38,292	61.9	15,618,699	209,613	134.2	15.4
1972	6,550,943	48,933	74.7	15,923,487	263,403	165.4	15.7
1973	6,825,090	46,749	68.5	16,293,658	246,924	151.5	15.9
1974	7,016,653	47,063	67.1	16,727,644	272,275	162.8	14.7
1975	7,153,598	60,314	84.3	17,332,053	313,376	180.8	16.1
1976	7,220,166	76,601	106.1	17,958,685	363,936	202.7	17.4
1977	7,244,411	80,574	111.2	18,591,902	360,501	193.9	18.3
1978	7,235,483	70,726	97.7	19,249,138	350,789	182.2	16.8
1979	7,179,966	73,536	102.4	19,941,396	364,634	182.9	16.8
1980	7,119,075	83,959	117.9	20,653,311	403,783	195.5	17.2
1981	7,068,728	84,275	119.2	21,386,278	475,730	222.4	15.0
1982	7,059,301	99,382	140.8	22,108,650	421,195	190.5	19.1
1983	7,089,432	93,356	131.7	22,804,615	426,208	186.9	18.0
1984	7,145,651	90,569	126.7	23,475,042	451,479	192.3	16.7
1985	7,188,000	88,298	122.8	24,093,425	438,016	181.8	16.8
1986	7,195,486	89,206	124.0	24,701,911	444,029	179.8	16.7
1987	7,174,062	80,025	111.5	25,325,341	456,011	180.1	14.9
1988	7,090,336	80,641	113.7	25,962,452	419,444	161.6	16.1
1989	6,944,890	85,428	123.0	26,637,386	386,503	145.1	18.1
1990	6,759,334	82,446	122.0	27,453,677	475,921	173.4	14.8
1991	6,610,059	72,413	109.5	28,139,943	572,710	203.5	11.2
1992	6,502,739	67,553	103.9	28,817,778	539,727	187.3	11.1
1993	6,434,668	74,465	115.7	29,463,521	666,217	226.1	10.1
1994	6,389,562	77,476	121.3	30,078,420	660,969	219.7	10.5
1995	6,339,477	85,461	134.8	30,659,215	731,259	238.5	10.5
1996	6,296,918	87,084	138.3	31,167,888	889,834	285.5	8.9
1997	6,211,001	95,666	154.0	31,688,712	761,873	240.4	11.2
1998	6,093,609	99,552	163.4	32,134,362	872,950	271.7	10.2
1999	5,924,716	93,261	157.4	32,644,628	804,124	246.3	10.4
2000	5,711,899	95,335	166.9	33,254,450	858,147	258.1	10.0
2001	5,470,013	83,572	152.8	33,888,464	857,831	253.1	8.9
2002	5,276,412	75,982	144.0	34,471,859	802,645	232.8	8.6
2003	5,171,736	67,135	129.8	35,007,246	958,005	273.7	6.5
2004	5,152,787	51,298	99.6	35,435,994	795,848	224.6	6.1
2005	5,194,546	50,652	97.5	35,760,423	743,640	208.0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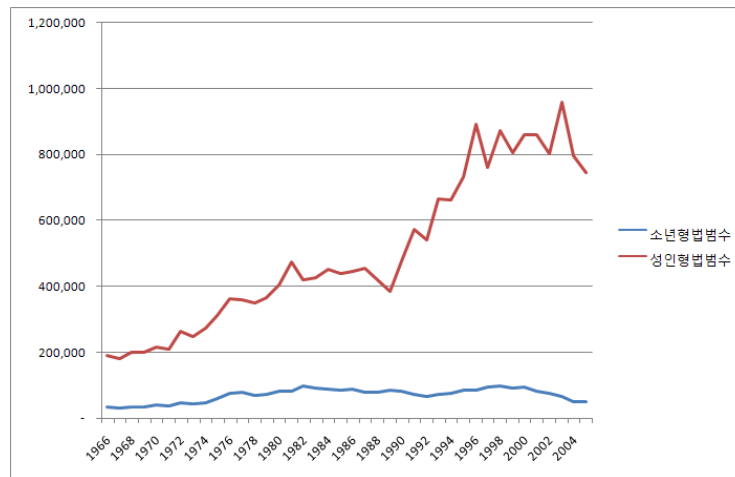
자료: 『범죄백서』(1996,2001, 2006) 재구성.

- 1) 특별법상 폭력행위처벌법범과 성폭력특별법범은 형법범에 포함.
 - 2) 소년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 성인인구비는 20세 이상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
 - 3) 소년범의 비율은 (소년범/(소년범+성인범)*100)로서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
- *) 범죄백서 2006 <표 1-63>에는 94,465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범죄분석 통계에는 95,335명으로 집계됨.
- **) 범죄백서 2006 <표 1-63>에는 82,746명으로 집계됨.

1966년 소년형법범의 수가 35,58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2005년도의 소년형법범 수는 50,652명이었다. 이 두 시기만을 놓고 본다면, 소년형법범의 수는 1.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소년추계인구 1만명당 소년형법범 수는 1966년에 76.5명에서 2005년에 97.5명으로 증가하였다. 소년형법범의 증감추세는 이미 소년형법범 인구비 추세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소년형법범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성인 형법범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소년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5>는 <표2>의 자료를 기초로 소년형법범과 성인형법범의 발생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한 것이다.

<그림5> 소년형법범수와 성인형법범수 비교(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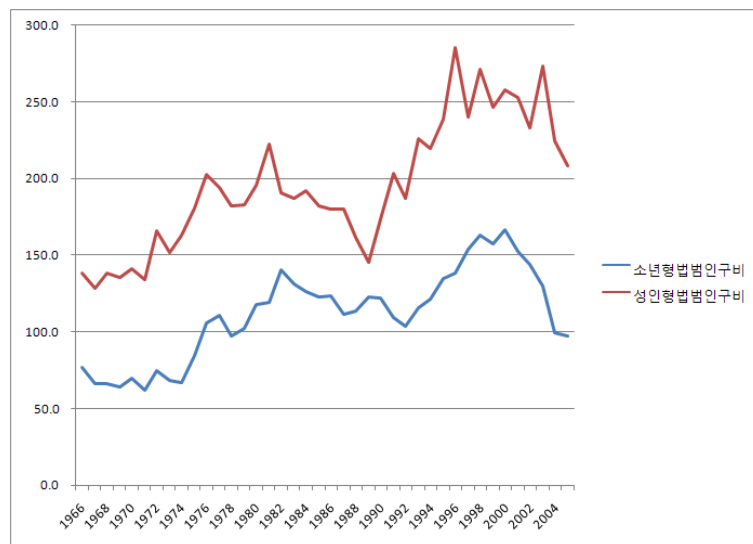


<그림5>를 통해 볼 때, 소년형법범 수의 증가는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인형법범의

수는 일정한 증가추세를 지속하면서 1966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성인형법범의 경우 시기별로 증가세가 구별되는데, 특별히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그리고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각각 2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곧 단순 범죄자수를 비교하면 소년형법범에 비교해서 성인형법범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년형법범과 성인형법범의 증감 추세 비교는 각각의 인구규모를 고려한 인구비 비교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림6> 소년형법범과 성인형법범 인구비 추이 비교(1966-2005)



주1) 인구비는 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6>은 소년형법범 인구비와 성인형법범 인구비의 연도별 추세를 비교한 것이다. 소년형법범과 성인형법범 인구비 추세는 서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급증하다가 1990년 즈음까지 하락하고, 다시 2000년 즈음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가 시작된 1966년부터 최고조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2000년까지 인구비 증가를 살펴보면, 소년형법범의 경우 1966년 76.5명에서 2000년 166.9명으로 2.18배 증가한 반면, 성인형법범은 1966년 137.9명에서 2000년 258.1명으로서 1.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5년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소년형법범은 1966년 76.5명에서 2005

년 97.5명으로 1.27배 증가한 것인 반면, 성인형법범은 1966년 137.5명에서 2005년 208.0명으로서 1.5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년형법범 증가추세를 인구비를 통해 성인형법범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 때, 1966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년형법범이 더욱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지만, 최근 범죄자수가 크게 감소한 2005년 시기까지 비교한다면, 소년형법범 인구비는 성인형법범에 비교해서 오히려 증가세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형법범과 비교해 볼 때, 소년형법범의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주장은 최근 2005년 자료를 통해 볼 때, 수정되어야 한다.

3) 소년형법범의 연령별 동향

<표3> 연령층별 소년형법범 동향(1966-2005)

연도	소년 추계인구	계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1991	6,610,059	72,413	109.5	1,738	2.6	2.4	14,297	21.6	19.7	24,444	37.0	33.8	31,934	48.3	44.1
1992	6,502,739	67,553	103.9	1,816	2.8	2.7	15,168	23.3	22.5	22,303	34.3	33.0	28,266	43.5	41.8
1993	6,434,668	74,465	115.7	1,822	2.8	2.4	18,283	28.4	24.6	25,093	39.0	33.7	29,267	45.5	39.3
1994	6,389,562	77,476	121.3	1,968	3.1	2.5	20,791	32.5	26.8	26,532	41.5	34.2	27,243	42.6	35.2
1995	6,339,477	85,461	134.8	1,617	2.6	1.9	25,650	40.5	30.0	30,890	48.7	36.1	27,304	43.1	31.9
1996	6,296,918	87,084	138.3	1,720	2.7	2.0	26,546	42.2	30.5	31,044	49.3	35.6	27,774	44.1	31.9
1997	6,211,001	95,666	154.0	1,249	2.0	1.3	29,058	46.8	30.4	35,582	57.3	37.2	29,777	47.9	31.1
1998	6,093,609	99,552	163.4	1,066	1.7	1.1	26,141	42.9	26.3	36,600	60.1	36.8	35,745	58.7	35.9
1999	5,924,716	93,261	157.4	970	1.6	1.0	22,612	38.2	24.2	33,094	55.9	35.5	36,585	61.7	39.2
2000	5,711,899	95,335	166.9	978	1.7	1.0	25,198	44.1	26.4	32,586	57.0	34.2	35,703	62.5	37.5
2001	5,470,013	83,572	152.8	957	1.7	1.1	20,488	37.5	24.5	27,291	49.9	32.7	34,010	62.2	40.7
2002	5,276,412	75,982	144.0	1,125	2.1	1.5	19,262	36.5	25.4	25,137	47.6	33.1	30,458	57.7	40.1
2003	5,171,736	67,135	129.8	891	1.7	1.3	18,265	35.3	27.2	22,409	43.3	33.4	25,570	49.4	38.1
2004	5,152,787	51,298	99.6	523	1.0	1.0	13,931	27.0	27.2	16,485	32.0	32.1	20,359	39.5	39.7
2005	5,194,546	50,652	97.5	198	0.4	0.4	16,770	32.3	33.1	17,098	32.9	33.8	16,586	31.9	32.7

자료: 『범죄백서』(2001,2006),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91-200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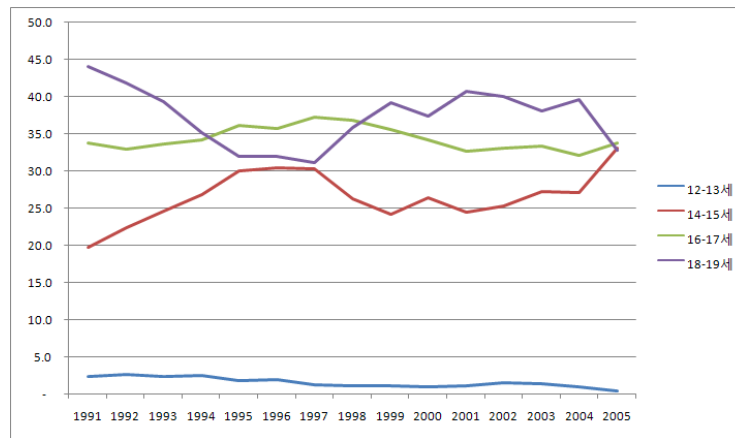
주1) 소년추계인구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추계인구임.

주2)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최근 소년범죄에 관한 논의에서 소년범죄의 특징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현상이다. <표3>은 과연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지난 1991년부터 최근 2005년까지 각 연령별로 형법범죄자와 그 구성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여부는 먼저 연령층별 범죄자 구성비율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각 연도별로 연령층별 구성비율의 변화를 살펴으로써 저연령층의 범죄율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표3>을 통해서 보면, 1991년에 전체 소년형법범죄에서 18-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4.1%, 16-17세는 33.8%, 14-15세는 19.7%, 12-13세는 2.4%였는데, 지난 2005년에는 18-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2.7%, 16-17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 14-1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1%, 12-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0.4%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7>이다.

<그림7> 연령층별 소년형법범죄 구성비율 비교(199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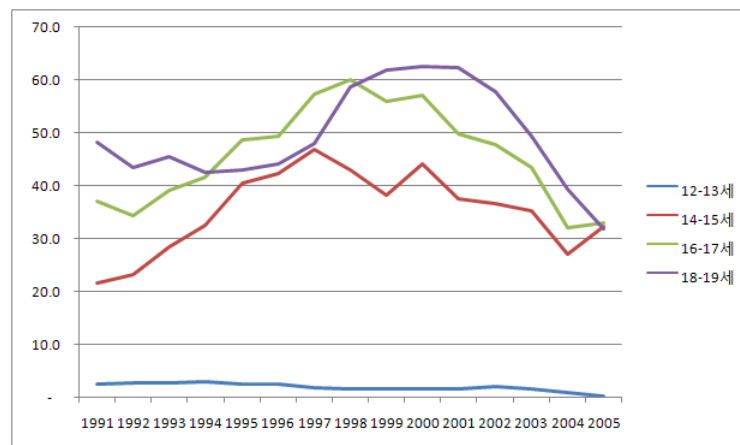


<그림7>을 통하여 살펴보면, 12-13세 연령층은 소년형법범죄 구성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3% 미만을 이루고 있을 뿐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6-17세 연령층도 거의 일정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14-15세는 1991년 20% 정도에서 30%대로 높아졌다가 25%대로 떨어지고 다시 조금씩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으며, 18-19세는 1991년 44%에서 30%대로 떨어졌다가 40%대로 높아지고

다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14-15세와 18-19세는 완전히 대칭적인 형태를 이루면서 서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4-15세의 비중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18-19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14-15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18-19세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래프로써 보건대, 12-13세와 16-17세의 추세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14-15세와 18-19세는 어느 한 방향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령층의 경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각 연령층의 소년형법범죄 구성비율로 보면 지난 15년 동안에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²⁾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여부는 소년형법범의 각 연령층 인구비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각 연령층별 소년형법범죄 구성비율을 통한 비교가 다른 연령층의 구성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비교라는 점이 있는 반면, 각 연령층 인구비 변화를 통한 비교는 각 연령층에서 소년인구 1만명당 각각 몇 명의 범죄자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더욱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8>은 각 연령층별로 소년형법범 인구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8> 연령층별 소년형법범 인구비 비교(1991-2005)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2) 이러한 맥락에서 김준호 등(2003)은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는 '제한적인 의미의 저연령화'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림8>을 통해서 지난 1991년과 최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1991년에 18-19세의 인구비가 44.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17세가 33.8명, 다음으로 14-15세가 21.6명 순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해서 2005년에는 이 세 연령층에서 거의 비슷하게 32명의 인구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면, 고연령층의 범죄자는 줄어들고, 저연령층의 인구비는 높아졌다는 점에서 볼 때,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가장 낮은 연령층인 12-13세는 미미한 정도이지만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 수는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 낮은 연령층인 14-15세의 경우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 수, 곧 인구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연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지만,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를 통해서는 반대로 인구비가 낮아지고 있다. 가장 고연령층인 18-19세의 경우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다소 낮아지는 듯했지만,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시기에 이 연령층의 인구비가 오히려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곧 소년 인구 중에서 높은 연령에 속하는 18-19세 연령층의 인구비가 일정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는 높아졌다가 비교적 최근에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7년 즈음에는 저연령화가 이뤄졌다면, 1998년부터 2001년 즈음에는 다시 고연령화가 이뤄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는 뚜렷하게 일정한 추세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저연령화와 고연령화가 공존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저연령화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년범죄 유형별 동향

<표4>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소년형법범의 범죄 유형의 구성비율과 인구비 변화를 조사한 것이며, <그림9>는 각 범죄 유형별 인구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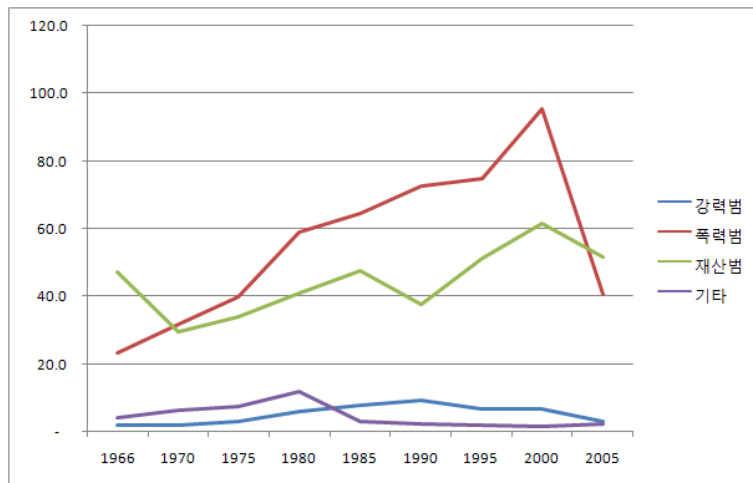
<표4> 소년형법범의 범죄유형별 동향(1966-2005)

연도	소년추계 인구	합계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기타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인원	인구비	%
1966	4,651,875	35,583	76.5	100	953	2.0	2.7	10,763	23.1	30.2	21,900	47.1	61.5	1,910	4.1	5.4
1970	5,843,502	40,699	69.6	100	1,234	2.1	3.0	18,427	31.5	45.3	17,194	29.4	42.2	3,799	6.5	9.3
1975	7,153,598	60,314	84.3	100	2,273	3.2	3.8	28,401	39.7	47.1	24,320	34.0	40.3	5,320	7.4	8.8
1980	7,119,075	83,959	117.9	100	4,216	5.9	5.0	42,014	59.0	50.0	29,206	41.0	34.8	8,523	12.0	10.2
1985	7,188,000	88,298	122.8	100	5,689	7.9	6.4	46,309	64.4	52.4	34,160	47.5	38.7	2,140	3.0	2.4
1990	6,759,334	82,446	122.0	100	6,261	9.3	7.6	49,075	72.6	59.5	25,404	37.6	30.8	1,706	2.5	2.1
1995	6,339,477	85,461	134.8	100	4,349	6.9	5.1	47,494	74.9	55.6	32,396	51.1	37.9	1,222	1.9	1.4
2000	5,711,899	94,465	165.4	100	3,762	6.6	4.0	54,556	95.5	57.8	35,196	61.6	37.3	951	1.7	1.0
2005	5,194,546	50,652	97.5	100	1,549	3.0	3.1	21,009	40.4	41.5	26,848	51.7	53.0	1,246	2.4	2.5

자료: 범죄백서(1996, 2001, 2006),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
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 주1) 강력범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성폭력특별법범 등임.
- 주2) 폭력범은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처벌법범 등임.
- 주3) 재산범은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등임.
- 주4) 기타는 과실범, 기타 등.
- 주5)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9> 소년 형법범죄 각 유형별 인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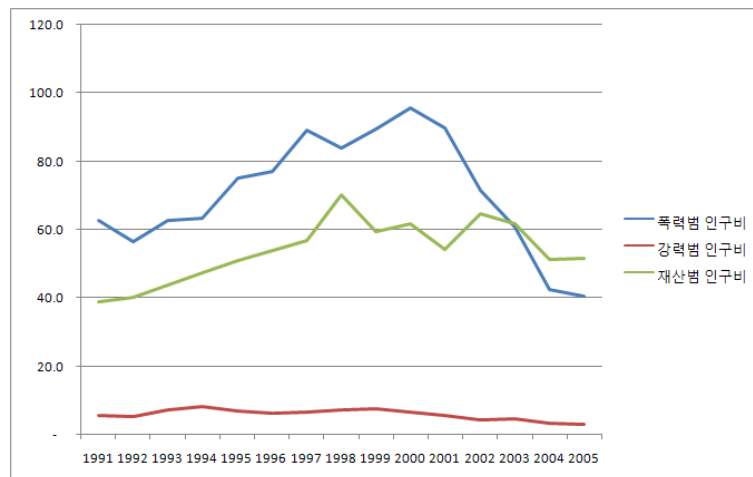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9>를 통해 볼 때, 강력범의 인구비는 1966년 소년인구 1만명당 2.0명에서 1990년 9.0명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2005년에는 다시 3.0명으로 낮아졌다. 소년형법범 중에서 그 비중이 높은 형법범죄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인데, 폭력범죄 발생추세는 1966년 소년인구 1만명당 23.1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95.5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 급증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인구비가 40.4명으로 절반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즉, 소년 폭력범죄는 1966년 이후 2000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2005년에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년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강조하여 온 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소년 재산범죄 발생추세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1966년 소년인구 1만명당 47.1명이었던 재산범죄자는 지난 2000년에는 61.6명을 나타내다가 다시 2005년에 51.7명으로 낮아졌다.

소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최근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단위로 소년형법범의 범죄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10>과 같다.

<그림10> 소년형법범 범죄유형별 인구비 비교(1991-2005)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10>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소년폭력범의 인구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최근 2000년 이후

의 소년폭력범의 감소가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소년재산범의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9>와 <그림10>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소년형법범죄에서 소년폭력범죄의 추세는 지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던 추세를 멈추고 2005년까지 급격한 감소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년폭력범죄의 급증에 기초하여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4. 소년형법범의 범죄명별 동향

1) 강력범의 동향

<표5> 소년 강력범 죄명별 발생 동향(1966-2005)

	소년추계인구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953	2.05	49	0.11	495	1.06	377	0.81	32	0.07
1970	5,843,502	1,234	2.11	58	0.10	518	0.89	614	1.05	44	0.08
1975	7,153,598	2,273	3.18	81	0.11	1,037	1.45	1,100	1.54	55	0.08
1980	7,119,075	4,216	5.92	88	0.12	1,822	2.56	2,278	3.20	28	0.04
1985	7,188,000	5,689	7.91	88	0.12	2,287	3.18	3,266	4.54	48	0.07
1990	6,759,334	6,261	9.26	160	0.24	3,334	4.93	2,675	3.96	92	0.14
1995	6,339,477	4,349	6.86	65	0.10	2,684	4.23	1,526	2.41	74	0.12
2000	5,711,899	3,762	6.59	39	0.07	2,295	4.02	1,366	2.39	62	0.11
2005	5,194,546	1,549	2.98	24	0.05	696	1.34	752	1.45	77	0.15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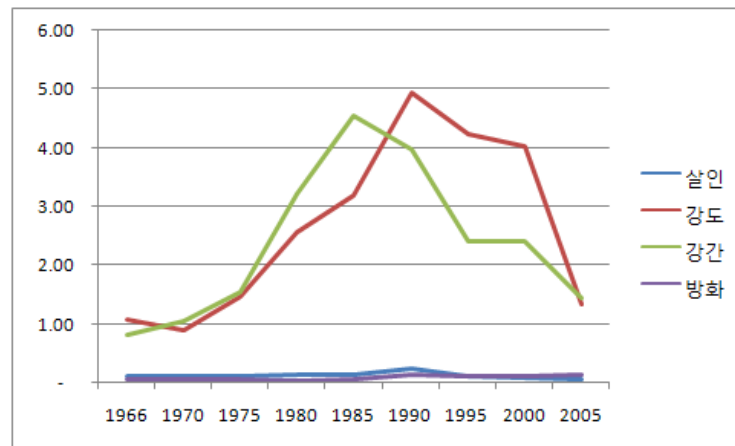
- 1) 1995년 이후 강간통계에는 성폭력특별법범 포함
- 2)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표5>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년강력범의 죄명별 발생인원과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강력범죄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은 강도와 강간이다. 이 시기 동안 강도범죄와 강간범죄의 평균 발생빈도가 소년인구 1만명당 각각 2.63명과 2.37명인 반

면, 살인범죄와 방화범죄는 각각 0.11명과 0.09명이다.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주기로 소년인구 1만명당 소년강도범죄자수를 살펴보면, 1966년에는 1.06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93명으로 4.6배 가량 증가하여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최근 2005년에는 다시 1.34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소년 강간범죄자의 경우에는 1966년에 0.81명이었던 것이 1985년 4.54명으로 5.6배 가량 증가하여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다시 2005년에는 1.45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림11>은 이러한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1> 소년강력범죄 죄명별 인구비 추이(1966-2005)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강력범죄 죄명별로 범죄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와 방화범죄는 평균 인구비 0.1명 수준에서 큰 증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반면, 강도범죄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급증추세를 나타내다가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강간범죄는 1966년부터 1985년까지 급증추세를 나타내다가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소년강력범죄 가운데 주요범죄유형인 강도와 강간범죄는 지난 1990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강도범죄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구비가 4.0명에서 1.3명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년강력범죄가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특별히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6> 소년 강력범 연령별 동향(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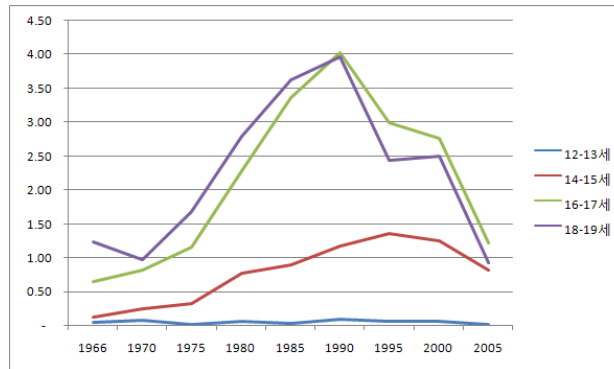
연도	소년추계인구	계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953	2.05	21	0.05	60	0.13	301	0.65	571	1.23
1970	5,843,502	1,234	2.11	50	0.09	145	0.25	474	0.81	565	0.97
1975	7,153,598	2,273	3.18	14	0.02	234	0.33	825	1.15	1,200	1.68
1980	7,119,075	4,216	5.92	44	0.06	556	0.78	1,626	2.28	1,990	2.80
1985	7,188,000	5,689	7.91	24	0.03	648	0.90	2,410	3.35	2,607	3.63
1990	6,759,334	6,261	9.26	64	0.09	794	1.17	2,718	4.02	2,685	3.97
1995	6,339,477	4,349	6.86	42	0.07	866	1.37	1,891	2.98	1,550	2.44
2000	5,711,899	3,762	6.59	40	0.07	719	1.26	1,576	2.76	1,427	2.50
2005	5,194,546	1,549	2.98	7	0.01	432	0.83	631	1.21	479	0.92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 1) 1995년 이후 강간통계에는 성폭력특별법범 포함
- 2)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표6>은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소년강력범의 연령별 동향을 조사한 것이다. 각 연령대별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 동안 소년인구 1만명당 소년강력범죄자수는 12-13세가 평균 0.05명, 14-15세가 0.78명, 16-17세가 2.14명, 18-19세가 2.24명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동안 소년강력범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인구비가 높아지는데, 특별히 16-17세, 18-1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소년강력범죄는 주로 16세-19세 소년들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림12> 소년강력범의 연령대별 인구비 추이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12>는 각 연령대별로 소년강력범의 인구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구비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2>를 통해 살펴보면, 1966년부터 2005년 시기 동안 소년강력범 가운데 12-13세 연령층은 강력범죄 빈도가 가장 낮은 연령층이었으며 시기별로 인구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14-15세 연령층은 1966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비가 증가하다가 이후 2005년까지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66년 0.13명이었던 인구비는 1995년 1.37명까지 높아졌다가 2005년에는 0.83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소년강력범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6-17세와 18-19세 연령층의 경우 거의 비슷한 인구비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데, 1966년부터 1990년까지 급증하다가 다시 2005년까지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6-17세의 경우 1966년 0.65명이었던 인구비는 1990년 4.02명으로 무려 6.18배나 급증하였다가 2005년에는 1.2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8-19세의 경우에는 1966년에 1.23명이던 인구비가 1990년에는 3.97명으로 3.2배 급증하였다가 2005년에는 0.9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16-17세에서 소년강력범의 증가속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1966년에서 1990년까지는 18-19세 연령층에서 인구비가 더욱 높았지만,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16-17세 연령층의 인구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2) 폭력범의 동향

<표7> 소년폭력범 동향(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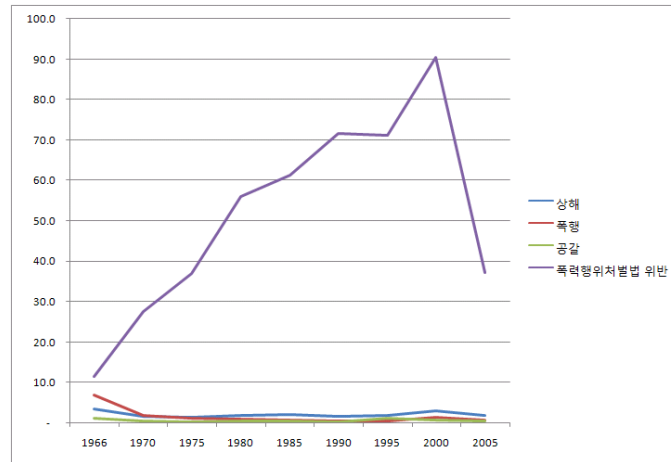
연도	소년추계인구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처벌법		공갈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10,763	23.1	1,612	3.5	3,248	7.0	5,347	11.5	556	1.2
1970	5,843,502	18,427	31.5	987	1.7	1,113	1.9	16,057	27.5	270	0.5
1975	7,153,598	28,401	39.7	972	1.4	802	1.1	26,433	37.0	194	0.3
1980	7,119,075	42,014	59.0	1,278	1.8	683	1.0	39,763	55.9	290	0.4
1985	7,188,000	46,309	64.4	1,454	2.0	503	0.7	44,041	61.3	311	0.4
1990	6,759,334	50,075	74.1	1,119	1.7	362	0.5	48,347	71.5	247	0.4
1995	6,339,477	47,494	74.9	1,173	1.9	410	0.6	45,113	71.2	798	1.3
2000	5,711,899	54,556	95.5	1,663	2.9	846	1.5	51,593	90.3	454	0.8
2005	5,194,546	21,009	40.4	901	1.7	455	0.9	19,348	37.2	238	0.5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임.

<표7>은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소년폭력범 죄명별 범죄자수와 인구비를 조사한 것이다. 소년 폭력범 중에서 상해, 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갈 등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년인구 1만명당 공갈 범죄자수가 평균 0.6명으로서 가장 비중이 낮고, 폭행범죄가 1.7명, 상해범죄가 2.1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가 5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년폭력범의 대다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자인 것이다. <그림13>은 1966년 이후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각각의 소년폭력범 유형의 인구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3> 소년폭력범 범죄유형별 인구비 추이(1966-2005)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그림13>을 통해서 보면, 소년 폭력범 범죄유형 가운데, 상해, 폭행, 공갈 범죄는 1966년 이후 2005년까지 범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상해범죄의 경우, 1966년 범죄자 인구비는 3.5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7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으며,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1966년 범죄자 인구비가 7.0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0.9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공갈범죄의 경우에도 1966년 1.2명이던 범죄자 인구비는 2005년에는 0.5명으로 줄어들었다. 소년 폭력범 중에서 상해, 폭행, 공갈범죄는 절대 범죄자수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자 인구비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의 경우는 범죄자 인구비가 1966년 11.5명에서 2000년 90.3명으로 거의 9배 가까이 급증하다가 2005년에는 37.2명으로 급감하였다. 소년범죄 연구자들이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것은 2000년도 시기까지 급증했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의 수의 기초한 것이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에서는 정반대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이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현재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 인구비 수준은 2000년도 시기에 비교하면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1975년 인구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의 추세에 기초하여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해 온 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8> 소년 폭력범 연령층별 동향(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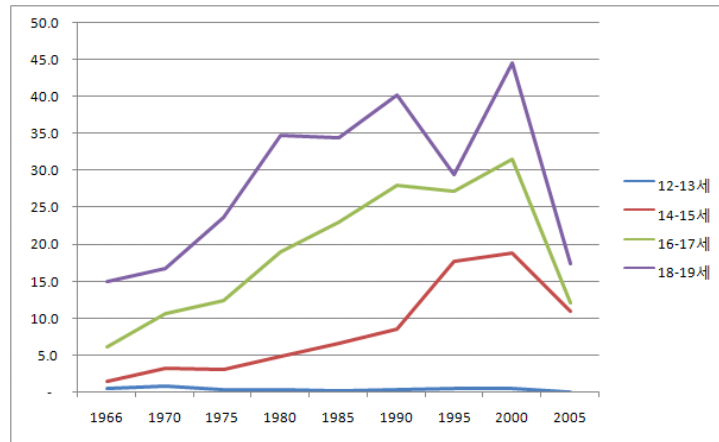
연도	소년추계인구	계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10,763	23.1	280	0.6	684	1.5	2,861	6.2	6,938	14.9
1970	5,843,502	18,427	31.5	525	0.9	1,892	3.2	6,264	10.7	9,746	16.7
1975	7,153,598	28,401	39.7	332	0.5	2,242	3.1	8,923	12.5	16,904	23.6
1980	7,119,075	42,014	59.0	278	0.4	3,505	4.9	13,480	18.9	24,751	34.8
1985	7,188,000	46,309	64.4	243	0.3	4,810	6.7	16,514	23.0	24,742	34.4
1990	6,759,334	50,075	74.1	292	0.4	5,753	8.5	18,851	27.9	27,179	40.2
1995	6,339,477	47,488	74.9	376	0.6	11,245	17.7	17,191	27.1	18,676	29.5
2000	5,711,899	54,556	95.5	364	0.6	10,770	18.9	17,991	31.5	25,431	44.5
2005	5,194,546	21,009	40.4	51	0.1	5,718	11.0	6,270	12.1	8,970	17.3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임.

<표8>은 연령층별로 소년폭력범죄자 수와 인구비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각 연령층별로 평균 범죄자 인구비를 살펴보면, 12-13세 연령층의 평균 범죄자 인구비는 0.5명이었으나, 14-15세는 8.4명, 16-17세는 18.9명, 18-19세는 28.4명이었다. 소년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폭력범죄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평균 범죄자 인구비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소년 폭력범죄가 주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4>는 1966년부터 2005년 시기 동안 5년 단위로 각 연령층별 범죄자 인구비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4> 연령층별 소년폭력범 인구비 추이



<그림14>를 통해서 연령층별로 소년폭력범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12-13세의 경우에는 1966년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가 0.6명이었는데, 2000까지 1.0명 미만의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2005년에는 0.1명으로 더욱 낮아져 이 연령층의 연도별 인구비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비중도 미미하다. 그런데 14-15세와 16-17세, 18세-19세의 경우에는 다같이 1966년부터 2000년까지 범죄인구비가 크게 증가한다. 18-19세의 경우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한 차례 감소추세를 나타내지만,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4-19세까지 연령층에서는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소년폭력범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6년에서 2000년 시기에 도 각 연령층별로 그 증가 추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14-15세에서는 1966년 범죄인구비가 1.5명이었던 것이 2000년 18.9명으로 12.6배 가량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16-17세에서는 1966년 범죄인구비가 6.2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31.5명으로 약 5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18-19세에서는 1966년 14.9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44.5명으로 약 3배 가량의 증가를 나타낸다. 각 연도별로 범죄인구비에서는 18-19세, 16-17세, 14-15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범죄 인구비의 증가율에서는 역순으로 14-15세, 16-17세, 18-19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세 연령층에서의 범죄인구비 증가세는 2000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급감세를 나타낸다. <그림14>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각 연령층별로 소년폭력범의 인구비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18-19세의 2005년도 범죄인구비는 1966년도 수준이며, 16-17세는

1970년도 수준을 나타낸다. 14-15세 범죄인구비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1990년대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14-15세 연령층의 범죄인구비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이 연령층이 향후 소년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향후 소년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14-15세 연령층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재산범의 동향

<표9> 소년재산범 동향(1966-2005)

연도	소년추계 인구	계		절도		사기		장물		횡령		기타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21,900	47.1	20,161	43.3	326	0.7	1,005	2.2	-	-	408	0.9
1970	5,843,502	17,194	29.4	15,459	26.5	521	0.9	788	1.3	-	-	426	0.7
1975	7,153,598	24,320	34.0	21,856	30.6	568	0.8	1,065	1.5	-	-	831	1.2
1980	7,119,075	29,206	41.0	26,929	37.8	714	1.0	842	1.2	-	-	721	1.0
1985	7,188,000	34,160	47.5	30,566	42.5	1,847	2.6	825	1.1	-	-	922	1.3
1990	6,759,334	25,404	37.6	22,663	33.5	1,292	1.9	653	1.0	-	-	796	1.2
1995	6,339,477	32,396	51.1	28,616	45.1	1,927	3.0	739	1.2	-	-	1,114	1.8
2000	5,711,899	34,923	61.1	30,125	52.7	3,474	6.1	520	0.9	-	-	804	1.4
2005	5,194,546	26,848	51.7	22,068	42.5	3,902	7.5	173	0.3	622	1.2	83	0.2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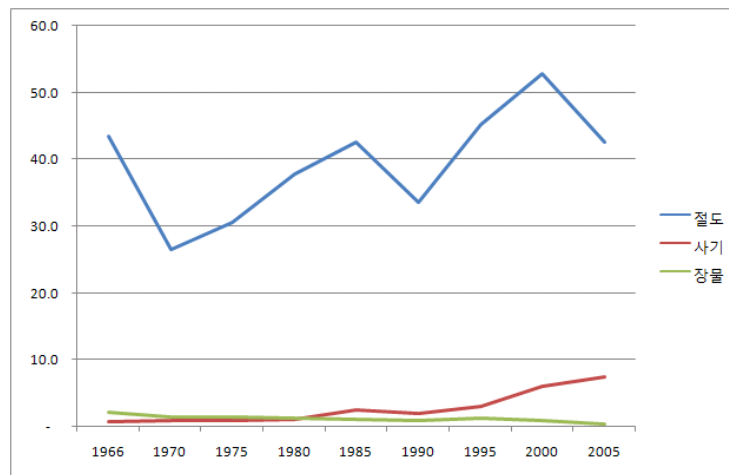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임.

주2) 횡령범죄는 2003년부터 추가되었음.

<표9>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소년재산범의 범죄유형별 범죄자수와 인구비를 조사한 것이다. 소년재산범의 범죄유형은 절도, 사기, 장물, 횡령범 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범죄유형이 재산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도범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범죄, 횡령, 장물 범죄 순이다. 5년 단위의 조사시기만 놓고 볼 때, 소년 절도범죄자 수는 소년인구 1만 명당 39.4명 정도이고, 사기범죄자수는 2.7명

정도이다. 소년재산범죄에서 절도범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5> 소년재산범 범죄유형별 범죄인구비 추이



<그림15>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소년재산범 범죄유형별 범죄인구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소년재산범 유형 가운데 장물범죄 인구비는 1966년 2.2명에서 2000년 0.9명, 2005년 0.3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1966년 범죄자 인구비가 0.7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2.6명, 2000년에는 6.1명, 2005년에는 7.5명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년재산범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범죄인데, 소년절도범죄인구비 추이를 보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를 나타낸다. 1966년 절도범죄인구비는 43.3명이었는데, 1970년에는 26.5명으로 낮아지고, 1985년에는 다시 42.5명으로 높아졌다가, 1990년에는 33.5명으로 낮아지고, 2000년에는 52.7명으로 최고조를 이루다가, 2005년 다시 42.5명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2005년 절도범죄 인구비는 1966년 수준과 비슷하다. 소년재산범에서 절도범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도범죄만을 놓고 본다면 2005년 현재의 수준은 1966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년재산범죄 유형 중에서 재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1966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기범죄는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10>은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연령층별 소년재산범

죄자 수와 인구비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표10> 소년재산범 연령층별 동향(196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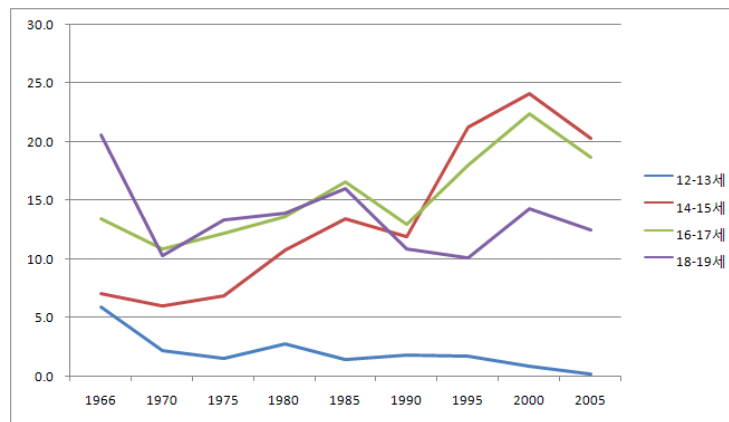
연도	소년추계인구	계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4,651,875	21,900	47.1	2,741	5.9	3,307	7.1	6,267	13.5	9,585	20.6
1970	5,843,502	17,194	29.4	1,310	2.2	3,543	6.1	6,356	10.9	5,985	10.2
1975	7,153,598	24,320	34.0	1,099	1.5	4,916	6.9	8,763	12.2	9,542	13.3
1980	7,119,075	29,206	41.0	1,970	2.8	7,666	10.8	9,701	13.6	9,869	13.9
1985	7,188,000	34,160	47.5	1,060	1.5	9,696	13.5	11,916	16.6	11,488	16.0
1990	6,759,334	25,404	37.6	1,231	1.8	8,071	11.9	8,748	12.9	7,354	10.9
1995	6,339,477	32,396	51.1	1,077	1.7	13,478	21.3	11,455	18.1	6,386	10.1
2000	5,711,899	35,196	61.6	491	0.9	13,760	24.1	12,812	22.4	8,133	14.2
2005	5,194,546	26,848	51.7	122	0.2	10,530	20.3	9,727	18.7	6,469	12.5

출처: 범죄백서(1996, 200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재구성.

주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 명당 범죄자수임.

연령층별로 소년재산범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12-13세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196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의 범죄인구비 평균으로 보면, 14-15세, 16-17세, 18-19세가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도별 범죄인구비 추이에서는 각 연령층별로 서로 다른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16>은 각 연령층별 범죄인구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6> 연령층별 소년재산범죄 인구비 추이



<그림16>을 통해서 보면, 소년재산범죄에서 12-13세 연령층의 범죄 인구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6년 5.9명에서 2005년 0.2명으로 감소하였다. 14-15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1966년 범죄인구비가 7.1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11.9명이 되고, 2000년에는 24.1명으로 크게 높아지다가 2005년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16-17세 연령층은 1966년 범죄인구비가 13.5명이었다가 1985년에는 16.6명으로 높아지고, 2000년에는 22.4명까지 높아지다가 2005년에는 18.7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18-19세 연령층은 14-15세 연령층의 그래프와 상반된 모양을 나타낸다. 1966년에는 20.6명으로 각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범죄인구비를 나타냈지만,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에는 12.5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14-15세와 18-19세 연령층을 비교해 보면, 1990년을 기점으로 두 연령층의 그래프가 마주치는데, 1990년 이전에는 18-1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범죄인구비를 나타내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14-15세 연령층은 1990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구비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범죄인구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는 소년재산범죄에 있어서 14-15세 연령층이 주도적인 범죄 연령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18-19세 연령층은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현상은 소년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소년강력범죄, 소년폭력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범죄 인구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소년강력범죄, 소년폭력범죄의 감소추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4. 요약 및 결론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년범죄자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범죄자 인구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2000년 이후 급감 추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난 2000년까지의 상황이며, 그 이후에는 소년범죄자 수로 보거나, 소년범죄자 인구비로 보거나 소년범죄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66년 이후 연도별 소년형법범의 인구비 추이는 2000년도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상대적으로 소년 특별법범의 인구비 추이는 2000년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소년형법범이나 소년특별법범이나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소년형법범 증가 추이를 성인형법범 증가 추이와 비교해 보면,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시기에는 소년형법범이 더욱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최근 2005년 시기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소년형법범 인구비는 성인형법범에 비교해서 오히려 증가세가 낮게 나타난다. 성인형법범과 비교해서 소년형법범의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주장은 지난 2000년까지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2005년까지의 상황을 반영할 때 이러한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연령층별 소년 범죄자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고연령층의 범죄자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인구비는 높아졌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바대로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기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7년경까지 저연령화가 이뤄졌다면, 1998년부터 2001년 즈음에는 고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는 뚜렷하게 일정한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연령화와 고연령화가 서로 함께 나타나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저연령화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강력범죄 가운데 주요범죄유형인 강도와 강간범죄는 지난 1990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강도범죄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범죄 인구비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소년강력범죄는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특별히 지난 2000년 이후 이러한 감소세가 뚜렷하다.

소년강력범죄 연령층별 추이를 살펴보면, 소년강력범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6-17세와 18-19세 연령층의 경우 1966년부터 1990년까지 급증하다가 다시 2005년까지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16-17세에서 소년강력범죄의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1966년에서 1990년까지는 18-19세 연령층에서 인구비가 더욱 높았지만,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16-17세 연령층의 인구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소년형법범 가운데 소년 폭력범죄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과 비교해서 2000년에는 4배 이상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2005년에는 폭력범죄 인구비가 200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소년 폭력범죄 중에서 상해, 폭행, 공갈범죄는 절대 범죄자 수에서만뿐만 아니라 범죄자 인구비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의 경우는 1966년 이후 2000년까지 급증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급감 추세를 보인다. 소년범죄 연구자들이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것은 2000년도 시기까지 급증했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의 수의 기초한 것이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에서는 정반대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이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현재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 인구비 수준은 1975년 인구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범죄의 추세에 기초하여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층별 소년 폭력범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부터 2000년까지에는 전반적으로 14-19세까지 연령층에서는 소년폭력범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소년 폭력범의 인구비 추이가 급감세를 나타낸다.

소년재산범 범죄유형별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범죄에서 절도범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절도범죄만을 놓고 본다면 2005년 현재의 수준은 1966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사기범죄는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년재산범 연령층별 인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소년재산범죄에 있어서 14-15세 연령층이 주도적인 범죄 연령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18-19세 연령층은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은 소년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소년강력범죄, 소년폭력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범죄 인구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특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반적인 주장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연령이 낮아지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지난 2000년 이전의 소년범죄 상황을 반영하여 제기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범죄통계로 볼 때 소년범죄 발생빈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년범죄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폭력을 동반하는 범죄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가 급증했던 과거의 통계에 기초해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논하거나, 갈수록 흉포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소년범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경향과 관련해서는 점차 그 범죄자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년범죄를 연령층별로 분석해 볼 때,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각 연령층에서 범죄인구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14-15세 범죄인구비의 감소세는 미미하다. 14-15세 연령층의 범죄 인구비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이 연령층이 향후 소년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소년재산범죄 인구비 추이에서도 연령층별로 볼 때, 14-15세가 주된 범죄연령층으로 부

각되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향후 소년폭력범죄와 소년 절도범죄,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14-15세 연령층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 범죄통계에 기초하여 소년범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거나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공식통계 분석결과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식 범죄통계만을 놓고 분석한 결과이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소년범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범죄피해자조사나 범죄에 대한 자기보고 질문서를 통해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퀴니(Quinney, 1975)가 지적하듯이 범죄통계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나 정책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를 통한 분석 외에도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피해자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범죄분석』. 2002-2005(통권 22-28호).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200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2006.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5.
-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00.
-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 김준호, 노성호, 오수정, 장은숙.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지선. “청소년비행연구 동향에 대한 수량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2000.
-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역. 『청소년 비행의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장준오. “청소년범죄의 사회구조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1995.
- (<http://kosis.nso.go.kr>)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연령별 추계인구(전국) 자료(1966-2005)
- Quinney, R.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1975.

책임연구보고서 2007-18

청소년 범죄발생 동향에 관한 연구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